한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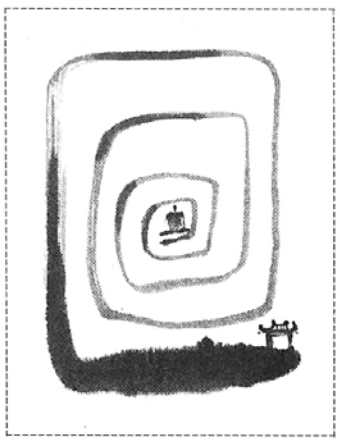
무문관 탐방

4

선의 제창

선에 익숙한 분들이야 번역만 보고도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혹은 내 친절한 번역조차 "평지에 괜히 일으킨 어설픈 풍파"라고 느끼겠지만, 지금까지 세 번의 강의에 갈피 못 잡고 계실 분들 또한 적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무문관〉의 다음 칙으로 넘어가자니 '애매한 것을 더욱 애매하게(obscurum perobscurius)' 만들어 사태를 더욱 헝클어 버리고 말 것같아 몇 마디 해설을 덧붙이기로 한다.

불교는 기록에 의하면 후한(後漢) 명제(明帝) 때 처음 전래되었다. 그 후 200년 넘어 활발한 번역과 격의(格義)를 통해 불교는 중국에 든든한 뿌리를 내린다. 그런데 이 작업은 인도에서 발전된 불교의 역사적 흐름을 따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인도불교의 무진장한 경전들은 번역자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두서없이 한역(漢譯)되기 시작했고 이 사태가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이냐"에 대한 분분한 논란을 일으켰다. 법화(法華)니 화엄(華嚴)이니 반야(般若)니 유식(唯識)이니 하는 특정한 소의(所依)경전을 축으로 다양한 문호가 세워졌고, 이들은 나름대로 장경(藏經)의 선후와 중요성을 매기고 정돈하는 이른바 교상판석(敎相判釋)을 유행시켰다. 이를 둘러싼 논쟁, 그를 통한 논소의 발전이 교(敎)의 황금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확장의 극은 언제나 응축으로 돌아선다. 논의가 분분해지고 입설이 첨예해지면 실지와의 거리가 또한 커지는 법이다. 그리하여 엇갈리는 관점을 정돈하고 대립되는 논설을 새로운 빛 아래 간명하게 종합하려는 경향이 대두한다. 그 중심에 원효(元曉)가 있다. 한 바가지의 해골물에 내장을 씻어낸 뒤 '일체가 마음이 짓는 것(一切唯心造)'임을 통찰한 원효는, "한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존재가 일어나고, 한 마음이 사라지니 온갖 존재가 사라진다"고 외쳤다. 그는 부처의 팔만사천 법문을 특정한 소의경전이 아니라 '마음' 하나에 귀일시키는 교판(敎判)의 혁명을 일으킨다. 모든 경전은 하나인 마음의 다양한 측면을 기술한 것이므로 번다하거나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모든 경전은 그 언어의 제한성과 규격성으로 하여 무한한 마음의 실상을 온전히 드러내 줄 수 없다. 요컨대 마음은 팔만의 법문을 포용하면서 동시에 배제한다. 이 역설의 논리가 원효로 하여금 모든 입설을 세우고 동시에 부수며, 주면서 동시에 빼앗는 것(입파여탈·立破與奪)을 가능하게 했다.

당대 최고의 학승으로 그는 당시에 한역된 거의 모든 경전을 비평하고 정돈하며 체계화해 나가는 기염을 토한다. 남아 있는 주석과 논설만 해도 그 규모를 짐작하기에 유감이 없다. 원효는 입파여탈의 자재의 변증을 통해 부처의 일대 교설을 한 그릇에 담아낸 최후의 교가(敎家)였다.

그렇지만 한켠에선 보다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종합이든 분석이든, 통조하든 비난하든 결국 그것은 언어와 입설의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한다. 합리적 사고와 정치한 논증, 치밀한 심리분석과 고원한 형이상학은 우리를 궁극의 구원에로 이끌지 못한다"고 여긴 일단의 학자들이 새로운 불교운동을 창도했다. 이 움직임은 A.D. 5세기말에서 6세기초 〈능가경(楞伽經)〉을 연구하던 조그만 모임에서 발원했다. 거기서 사람들은 불어심위종(佛語心爲宗), "즉 부처가 설한 가르침 가운데 핵심은 마음"이라는 구절을 발견한다. (*혜개가 自序의 서두를 이 구절로 시작하는 것을 눈여겨 본 사람이 있는가.) 불교의 가르침, 팔만 사천의 법문의 귀착처는 다름아닌 마음 그것이다. 부처가 알리고자 한 소식은 바로 이 마음을 둘러싼 진실이며, 그 구경은 학인들로 하여금 실지 체험을 통해 해탈로 이르게 하는 것 아닌가. 여기서 그들은 또 다른 논설을 기획하거나 장경을 종합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직접적인

부처님 가르침 귀착처는 '마음'

"체험통해 해탈하라" 禪 교판혁명

확장의 극은 언제나 응축으로 돌아선다. 논의가 분분해지고 입설이 첨예해지면 실지와의 거리가 또한 커지는 법이다. 그리하여 엇갈리는 관점을 정돈하고 대립되는 논설을 새로운 빛 아래 간명하게 종합하려는 경향이 대두한다. 그 중심에 원효(元曉)가 있다. 한 바가지의 해골물에 내장을 씻어낸 뒤 '일체가 마음이 짓는 것(一切唯心造)'임을 통찰한 원효는, "한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존재가 일어나고, 한 마음이 사라지니 온갖 존재가 사라진다"고 외쳤다. 그는 부처의 팔만사천 법문을 특정한 소의경전이 아니라 '마음' 하나에 귀일시키는 교판(敎判)의 혁명을 일으킨다. 모든 경전은 하나인 마음의 다양한 측면을 기술한 것이므로 번다하거나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모든 경전은 그 언어의 제한성과 규격성으로 하여 무한한 마음의 실상을 온전히 드러내 줄 수 없다. 요컨대 마음은 팔만의 법문을 포용하면서 동시에 배제한다. 이 역설의 논리가 원효로 하여금 모든 입설을 세우고 동시에 부수며, 주면서 동시에 빼앗는 것(입파여탈·立破與奪)을 가능하게 했다.

당대 최고의 학승으로 그는 당시에 한역된 거의 모든 경전을 비평하고 정돈하며 체계화해 나가는 기염을 토한다. 남아 있는 주석과 실천을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처음 율종의 사원에 기거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반성적 의식은 주객(主客)과 능소(能所)의 이분을 벗어날 수 없고, 언어와 분석 또한 마음의 직접적인 파지에로 이끌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불교가 형성해온 장광설의 전통, 즉 팔만사천 법문을 밀쳐두고 새로운 방법과 통로를 모색해 나갔다.

이때까지 불교의 역사는 그 굴곡과 착종의 다기한 변전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통해 접근한 점에서 정통적이었다. 그런데 선(禪)은 그 최후의 보루마저 돌아보지 않는 획기적인 파격을 감행했다. 혜개가 自序의 서두에서 했던 무문위법문(無門爲法門)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가르침'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파천황의 선언이다. 경전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참고삼아 뒤적이는 것에 불과했다. 경전의 가르침을 등불삼아 진리를 찾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고' '기왓장을 갈아 거울을 만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했다. 이 모든 취지가 "문은 없다(無門)!"라는 한 마디에 집약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막막한 벽 앞에 섰다. 대체 언어를 통하지 않은 길이란 것이 존재하는가. 또 그 길은 어떤 것이며, 그를 통해 도달하는 곳은 어디인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法數로 배우는 불교

〈14〉

삼업(三業)

흔히 쓰는 말들가운데 업(業)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팔자가 이 모양이냐"하는 푸념에도 들어있고 "이게다 너의 업보니 달게 받아라"하는 질책에도 들어있다. 어떻게 보면 업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그리 좋은 감정을 나타내 주지는 못하는 것같다. 사람들은 업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들음에 죄나 악과 같은 어둡고 칙칙한 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본래 업이라는 말은 범어 까르마(Karma)에서 비롯된 것으로 '행위' '조작' '일' '짓'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중생들이 일으키는 일체의 활동을 통칭하는 말이다. 불경속에서는 이 업이라는 글자의 앞과 뒤에 여러 종류의 다른 글자가 붙으면서 그 뜻을 다각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업이라는 문제를 중생들이 잘 이해하고 극복함으로써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중생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도 죽게도 하며,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주체로 여기셨다. "세계는 업에 따라 존재하고 사람 또한 업에 따라 존재한다. 수레바퀴가 쐐기에 얽혀 돌아가듯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업에 의해 속박당하고 있다"라는 〈숫타니파타〉의 말씀과 "사람의 행위는 좋은 땅에 잘 뿌려진 씨앗과 같다. 비가 내려 날 때가 되면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와같이 중생들의 악함과 선함으로 하는 행위도 반드시 언젠가는 자라서 과보를 가져 오느니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그 과실을 먹어야 한다"는 〈증일아함경〉의 말씀은 업이 바로 세계와 중생을 건립하는 요인임을 알려준다.

업의 종류를 말한다면 중생들이 짓는 온갖 행위 만큼이나 많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많은 업을 대략 세 가지 요목으로 분류해서 그 뜻을 밝히고 있다. 첫째가 발생처적 분류이다. 발생처적 분류라는 것은 업을 일으키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업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다. 중생들은 모든 행위를 일으킴에 있어 자신의 몸(身)으로 입(口)으로 마음(意)으로 한다. 몸으로는 행동을 짓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마음으로는 분별을 하는데·이것이 모두 업인 셈이다. 두번째가 윤리적 분류이다. 윤리적 분류라 함은 중생들이 일으킨 신·구·의·삼업이 선하냐, 악하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느냐는 측면으로 업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선업(善業) 악업(惡業) 무기업(無記業)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말씀에는 "선한 업에는 즐거운 과보가, 악한 업에는 괴로운 과보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업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과보가 뒤따른다"고 하셨다.

세번째가 결과론적 분류이다. 결과론적 분류라함은 신구의 삼업에 따라붙는 선업·악업·무기업 등 삼업의 과보가 언제 나타나느냐는 측면에서 업을 설명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지은 모든 업에는 늘 과보가 따라 붙는다고 하셨다. 다만 그 시기가 다를 뿐이다.

금생에 지어 금생에 받는 것을 순현업(順現業)이라 하고 금생에 지어 다음생에 받는 것을 순선업(順先業)이라 하며 금생에 지은 업이 금생에나 다음생에는 받지 않지만 언젠가는 받게되는 것을 순후업(順後業)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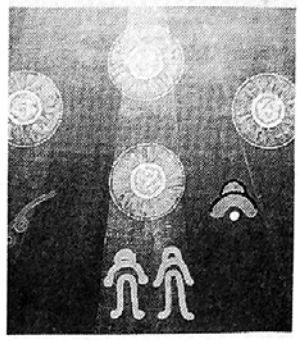
그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삼업의 종류들은 대체 어디로부터 기초되며 어디로 귀결되는 것일까. 그곳은 다름아닌 마음이다. 업이 일어나는 곳도 업이 저장되는 곳도 모두 마음인 것이다. "마음은 전생업의 총결과요, 금생업의 일체 종자"라고 한 유식론의 말씀이 이를 증명한다.

많은 불자들은 아직도 자신이 전생부터 지어온 업이 자신의 마음 밖에 어떤 허공이나 세상에 숨어 있다가 닥쳐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업이 비켜나가거나 소멸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참회기도를 하고 공덕을 짓기도 한다.

업이란 진정한 의미에서 움직이는 마음, 닥쳐오는 일체의 인과를 말한다. 업을 보고 업을 깨닫고 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한가지 길밖에는 없다. 그것 역시도, 마음을 보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몸으로는 행동을 짓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마음으로는 분별한다"

행·불행 주체…"깨달아 벗어나자"



◇현정 作 '귀의'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⑬

불교와 수학

⑦

大數와 小數

김 용 운

항하사·아승기겁 등 무한대 수

1탄지=65찰나=65분의 1초

"선남자들아 과거 무량(無量), 무변(無邊), 불가사의(不可思議), 아승기겁(阿僧祇劫)… 그 때에 부처님이 계시되…"(〈법화경〉 서품)

유마힐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어진 이여, 그대는 이미 시방세계를 헤아릴 수 없는 수십억 불국토에서 노닌 적이 있는데, 어떤 불국토에 가장 뛰어나고 오묘하고 공덕이 갖춰진 대사자좌가 있습니까?"

문수사리가 답했다.

"동쪽으로 36항하사(恒河沙) 등의 불국토들을 지나면 부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을 수미상(須彌相)이라고 합니다. 그 불국토의 여래는 수미등왕(須彌燈王)이라고 부르는데, 현재도 그곳에 안온히 머물고 계십니다. 그 부처님의 키는 84억 요자나이고, 사자좌의 높이는 68억 요자나입니다. 〈유마경중 불가사의한 이야기〉

중국계의 산학책에는 다음과 같은 큰 수, 작은 수가 소개되어 있다.

즉 '대수'는 억(億)·조(兆)·경(京)·해(垓)·자(姊)·양(壤)·구(溝)·윤(潤)·정(正)·재(載) 등 10개의 단위 다음에 새로 극(極)·항하사(恒河沙)·아승기(阿僧祇)·나유타(那由他)·불가사의(不可思議)·무량수(無量數) 등 이것들은 모두 만만(万万)진법(10^8진법:1 뒤에 0이 8개씩 늘어나는 것)에 의해서 자리바꿈을 한다. 항하사, 아승기, 불가사의, 무량수 등은 모두 불경에서 착용한 것이다. 1무량수는 1 뒤에 68개의 0이 붙는다.

항하사
=1,000,000,000